

# 백제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정면과 봉황의 방향

이용진\*

## 〈차 례〉

1. 머리말
2. 장례용 두침의 기원과 전개
3. 왕비 두침의 정면
4. 왕비 두침의 봉황의 방향
5. 맺음말

## [국문초록]

1971년 공주 송산리고분군에서 축조 이후 한 번도 도굴되지 않았던 백제 무령왕릉이 발견되었다. 무령왕릉의 발굴에서는 왕과 왕비의 다양한 부장품 108건 4,687건의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의 역사와 미술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무령왕릉의 부장품 중에서 시신을 안정감 있게 안치하기 위한 두침 중에서 형태가 잘 남아있는 왕비 두침의 정면과 두침 위에 놓이는 봉황의 방향에 대해 새롭게 접근하였다.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정면은 시신의 머리를 두침에 가장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는 쪽을 정면으로 보았다. 즉 두침의 낮은 쪽에 뒤통수, 높은 쪽에 정수리가 놓이는 것으로 보았고, 이러한 시각에 따라 현재 왕비 두침의 정면은 후면이 되고, 후면이 정면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의 두침과 백제의 다른 두침의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에 무령왕릉 출토 왕비의 두침도 같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漢代의 두침에 장식된 동물들은 모두 비깔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은 장례용 두침에 놓이는 동물 장식의 기능이 외호와 벽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봉황 장식 역시 안쪽이 아닌 비깔쪽을 보는 위치에 놓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대의 장례용 두침에 장식되는 동물 중 봉황은 없었기 때문에 봉황을 외호와 벽사가 아닌 祥瑞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에 놓이는 봉황의 위치는 정면

\*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무령왕릉(武寧王陵), 왕비 두침(王妃頭枕)의 정면, 봉황(鳳凰)의 방향, 한대 옥침(漢代玉枕), 벽사(辟邪)

## 1. 머리말

1971년 7월 충청남도 공주의 송산리고분군에서는 축조 이후 한 번도 도굴되지 않았던 백제 무령왕릉이 발견되었다.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무덤 형식인 벽돌무덤의 영향을 받아 축조한 백제의 벽돌무덤으로 무령왕릉의 발굴에서는 총 108건 4,687건의 유물이 출토되어 백제의 역사와 미술을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령왕릉의 발굴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삼국시대 고구려와 신라의 왕릉과는 다르게릉의 주인공을 알 수 있는誌石을 비롯해 왕릉을 지키는鎮墓獸가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존의 왕릉에서 볼 수 있는 거울과 장신구 등 다양한 부장품도 출토되었다.

무령왕릉 출토 부장품들은 권위를 상징하거나辟邪의 기능을 하며, 頭枕과 足座, 冠飾 및 귀걸이와 목걸이 등의 장신구, 그리고 금동신발은 무령왕과 왕비의 관에서 모두 출토된 공통적인 부장품들이다. 반면 용봉장식등근 고리큰칼과 허리띠, 뒤꽂이 등은 무령왕, 팔찌와 은잔, 다리미 등은 왕비의 관에서만 발견되었다.

무령왕릉 출토 두침과 족좌는 무령왕과 왕비의 부장품 중에서 지식과 진묘수에 비해 관심을 덜 받았지만, 왕과 왕비의 관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왕릉에서는 유일하게 출토된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령왕릉 출토 왕과 왕비의 두침과 족좌는 시신을 안치할 때 사용하는 장례용구로 왕의 것은 黑漆, 왕비는 朱漆을 하여 차별성을 두었다. 무령왕과 왕비의 두침과 족좌는 六角文을 기본 문양틀로 사용하였는데, 특히 왕비의 베개는 금박으로 육각문을 만들고 그 안에는 飛天과 瑞鳥, 어룡, 팔메트 등 다양한 문양을 표현하여 발견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고, 발견 이후 여

러 연구가 진행되었다.<sup>1)</sup>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두침에 표현된 여러 도상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무령왕릉 출토 왕비의 두침과 관련해서 새롭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왕비 두침의 정면과 두침의 윗면에 별도로 놓는 봉황 장식의 방향이다. 그동안 무령왕릉 출토 왕비의 두침은 무령왕릉 발굴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연화화생이 묘사된 면을 정면으로 간주하였고, 두침 위에 놓이는 봉황의 방향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다. 그러나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정면이 어느 쪽인지와 그리고 두침 위에 놓이는 봉황이 두침의 안쪽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견해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무령왕릉 발굴 이후 고착화 된 무령왕릉 두침의 정면과 두침 위에 놓이는 봉황의 방향에 대해 국내외 출토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장례용 두침의 기원과 전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사용하는 두침은 장례용구의 하나로 피장자를 안치할 때 시신을 안정감 있게 안치하고 내세에서의 평안함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sup> 장례용 두침은 고대 중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중국의 경우 漢代 이전의 장례용 두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漢代에 들어 옥으로 만든 장례용 玉枕이 江蘇省을 비롯해 河北省, 河南省, 山東省, 安徽省 등지에서 출토되었고, 그중에서 강소성 徐州 지역에서 여러

1) 진홍섭, 「武寧王陵 발견 頭枕과 足座」, 『백제연구』 9, 1975; 吉村裕, 「百濟武寧王妃木枕に描かれた佛敎圖像について」, 『美術史研究』 14, 1977; 邵磊, 「摩羯紋의 東進過程에 관한 약간의 문제 - 百濟 武寧王妃 木枕에 그려진 魚龍紋의 기원에 대하여」, 『충청학과 충청문화』, 2006; 강우방, 「무령왕비 두침과 족좌의 영기화생의 조형해석과 도상해석」, 『무령왕릉을 格物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1; 장석오, 「武寧王妃 頭枕에 그려진 魚龍文의 實體」, 『백제문화』 49, 2013; 박서영, 「백제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용도와 성격」, 『미술사학연구』 289, 2016.

2) 황보경, 「신라 고분 출토 석침(石枕) 고찰 - 중부지방과 경주를 중심으로」, 『고고학』 12-1호, 중부고고학회, 2013, 74쪽.

침이 출토되었다.<sup>3)</sup> 이 같은 장례용 옥침은 다른 옥기들과 함께 부장하는데, 玉衣를 비롯해 玉握, 玉璧 등이 세트를 이루며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장례용 두침의 기원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고대 중국의 禮書인 『周禮』와 『儀禮』에는 망자의 장례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두침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周禮』 「天官·玉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大喪 때에는 시신의 입 안에 옥을 넣고 생존시의 의복을 입히고 빨로 만든 베개와 빨로 만든 수저를 갖춘다.<sup>4)</sup>

『주례』 「천관·옥부」에는 大喪 때에는 舍玉과 復衣裳, 角枕, 角枵를 사용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鄭玄은 주석에서 角枕을 角枕以枕尸로 언급하고 있어 장례용 두침의 사용은 周代의 장례 풍습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례』에는 두침을 빨로 언급하고 있어 주대에는 동물의 빨로 두침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장례용 베개와 관련된 또 다른 기록으로 『儀禮』를 들 수 있다. 『儀禮』 「士喪禮」에는 장례용 두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士를 들어서 시신을 옮겼다가 다시 제 위치에 놓고 두 기둥 사이에 상자를 설치하고 요는 처음과 같이하고 두침을 베게 한다.<sup>5)</sup>

『의례』 「사상례」에 따르면, 士人이 사망했을 때에도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장례용 두침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례』에는 『주례』와 같이 두침의 재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고대 중국의 예서인 『주례』와 『의례』를 참고로 하면, 고대 중국에서 장례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장례용 두침은 周代에 들어 체계화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주대

3) 赵赞, 「试论汉代玉枕」, 『文物世界』2009-6, 江苏省徐州博物馆, 2009, 15쪽.

4) 『周禮』 「天官·玉府」, 大喪共舍玉 復衣裳 角枕角枵

5) 『儀禮』 「士喪禮」, 士舉遷尸 反位 設床策于兩楹之間 衽如初 有枕

의 장례용 두침은 발견되지 않아 당시에 사용하였던 장례용 두침의 모습은 알 수 없다. 이처럼 先秦시기의 두침의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장례용 두침은 玉製를 비롯해 木製와 石製, 陶製 등으로 만들었고, 시대와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재질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漢代에는 옥제 두침을 선호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대의 장례용 옥침은 서한전기부터 諸侯王, 列侯 및 귀족층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대표적인 것은 中山王 劉勝과 그의 부인 竇綰墓 출토 옥침이다. 류승묘와 두관묘에서 출토된 옥침은 玉衣와 세트를 이루며 사용되었다. 옥제 두침의 출토 지역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강소성을 중심으로 하북성과 하남성, 안휘성에 집중되며, 강소성 서주에서 10여건의 옥침이 출토되었다.<sup>6)</sup>

한대의 장례용 두침은 弧形, 几形, 箱子形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짐승의 머리가 달린 것을 별도의 형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두침에는 짐승이 장식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漢代 이후 옥침을 비롯한 장례용 두침의 사용이 점차 줄어들고, 위진남북조시대의 장례용 두침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특히 남조의 묘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는데, 曹操의 禁碑令으로 후장 풍습이 금지되면서 장례용 두침은 점차 감소하며, 滑石製 豚 등 간소한 부장품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진남북조시대 두침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기록은 장례용품으로서 두침의 사용이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西晉과 東晉의 관료로 지낸 賀循(260-319)은 『葬禮』에서 무덤에 넣을 부장품 목록을 언급하였는데, 그 목록에는 1개의 두침이 포함되어 있으나 재질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sup>8)</sup> 장례용 두침은 漢代에 이어 위진남북조시대인 서진과 동진대

6) 赵赞, 앞의 논문, 2009, 15~16쪽. 江蘇省 徐州 子房山 M3호묘, 江蘇省 徐州 東甸子 西漢墓, 江蘇省 徐州 藥檢所漢墓, 江蘇省 徐州 韓山 西漢墓 M1, 江蘇省 徐州 獅子山漢墓, 江蘇省 徐州 鐵利山 M11, 江蘇省 徐州 火山漢墓, 江蘇省 徐州 后樓山 M1, M2, M5, 江蘇省 徐州 天齊 M1, 江蘇省 徐州 蘇山頭 M2 등의 漢墓에서 옥침이 출토되었다.

7) 王雪嫣, 「汉代玉枕形器与古玉改制」, 『美术教育研究』 2023-22, 43-45쪽.

8) 『通典』 卷86 禮46 沿革46 禮8, 「憑几一, 酒壺二, 漆屏風一, 三穀三器, 瓦唾壺一, 脯一箇, 屨一, 瓦樽一, 屨一, 瓦杯盤杓杖一, 瓦燭盤一, 箸百副, 瓦奩一, 瓦竈一, 瓦香爐一, 釜二, 枕一, 瓦甌一,

에도 사용되었던 것은 알 수 있으나 두침의 수량만 기록하였을 뿐 재질이나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한편 顏之推(531-591)는 『顏氏家訓』에서 사후 본인의 무덤에 넣어야 할 목록을 언급하였는데, 그는 松棺, 衣帽 이외에는 부장하지 말고, 상에는 七星板만 깔아주면 되고, 靈筵에 두침이나 几床을 만들지 말라고 언급하고 있다.<sup>9)</sup> 하순과 안지추는 장례시 필요한 것만 부장하라고 언급하였는데, 하순은 두침을 언급하였지만 안지추는 두침도 금지하여 서진과 동진대보다 북제대에 장례용품은 보다 간소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진남북조시대 이후 중국에서는 陶枕이 새로운 장례용 두침으로 사용되는데, 도침의 사용은 隋代에 들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0)</sup> 당대에 들어서는 唐三彩 등으로 두침이 제작되었고, 이후의 왕조들에서도 도자기로 만든 두침이 지속적으로 제작,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고구려와 백제, 신라에서 모두 장례용구인 두침을 사용하였다. 삼국시대 장례용 두침의 사용은 낙랑을 통해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영향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sup>11)</sup>

고구려의 장례용 두침은 陶製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목제 두침과 석제 두침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구려의 도제 두침은 중국 집안 마선묘구 M117호 출토 陶枕과 명문이 새겨진 도침 등이 알려져 있다.<sup>12)</sup> 붉은색 점토로 만든 마선묘구 M117호 출토 陶枕은 장방형으로 앞면 길이 22.3cm, 뒷면 길이 24.5cm로 뒷면이 앞면보다 길고, 폭은 14.2cm, 높이는 8.3~10.4cm로 뒷면이 앞면보다 약간 높게 만들었다. (圖 1)

백제의 장례용 두침은 목제 두침을 비롯해 석제와 도제 두침이 모두 사용

手巾贈幣元三繡二, 博充幅長尺瓦鏞一, 瓦甌盤一.” Albert E. Dien, *Six Dynasties Civilizati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pp.193-194; 顏之推 著·임동석 역주, 『안씨가훈』, 고즈원, 2004, 468-470쪽.

9) 顏之推, 『顏氏家訓』卷下 終制編二十, “當松棺二寸, 衣帽已外, 一不得自隨, 床上唯施七星板…靈筵勿設枕几…”.

10) 肖梵龍, 「鎮江市博物館藏宋影青瓷枕」, 『文物』1978-11期, 92쪽.

11) 原田淑人 外, 『樂浪: 五官掾王野の墳墓』, 刀江書院, 1930, 58-59쪽.

12) 고구려 도침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김대환, 「삼국시대의 도침 연구」, 『백산학보』 71, 백산학회, 2005, 35-55쪽.

되었다. 목제 두침은 무령왕릉 출토 왕과 왕비의 두침이 있으며, 석제 두침은 나주 북암리 3호분 출토 두침 등이 있고, 도제 두침은 충남 웅천 구룡리 출토품이 있다. 나주 북암리 3호분 출토 석제 두침은 장방형 석제 중앙에 머리를 놓을 수 있도록 둥글게 홈을 파고, 시신의 머리를 놓을 수 있게 하였는데, 앞쪽보다는 뒤쪽을 높게 하여 시신의 머리를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게 하였다. (圖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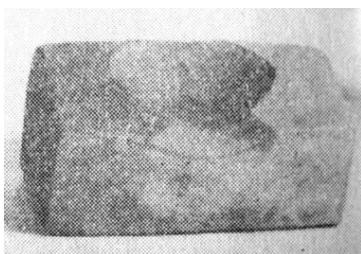


圖 1. <도제두침>, 고구려, 길이 22.3cm, 중국 집안 마선묘구 M117호 출토



圖 2. <석제두침>, 백제, 길이 37.3cm, 나주 북암리 3호분 7호묘 출토



圖 3. <도제석침>, 백제, 길이 29.5cm, 충청남도 보령 구룡리 고분 출토

도제 두침은 충청남도 보령 구룡리 출토품이 있는데, 이 도침은 길이 29.5cm, 폭 11.5cm, 높이 9cm의 크기로 머리를 놓는 부분은 윗면에서 깊이 5cm, 폭 14.5cm의 타원형으로 한 단 낮게 파고, 그 위쪽에 중간 부분은 폭 0.5cm의 너비로 도려내 틈을 둔 형태이다. (圖 3) 주목되는 것은 도침 윗면의 작은 구멍으로 이것은 무령왕릉 출

토 두침과 같이 장식을 꾸기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13)</sup>

신라의 장례용 두침은 石製가 주를 이루고 경주 이외에 서울, 여주, 충주,

13) 김대환, 앞의 논문, 58쪽.

춘천, 강릉 등에서도 石枕이 출토되었다. 신라의 두침은 머리만 받치는 것과 머리와 어깨를 받치는 것이 있으며, 전자는 경주 서악동 석침총 출토품이고(圖 4), 후자는 전 현강왕릉 출토품이다.(圖 5) 전 현강왕릉 출토 두침은 2매의 돌을 상하가 아닌 좌우로 나누어 조립한 것이 특징이다.<sup>14)</sup>



圖 4. <석제두침>, 신라, 69.7×29.8cm, 머리 지름 18cm, 경주 서악동 석침총 출토



圖 5. <석제두침>, 신라, 길이 54cm, 머리지름 20cm, 전 현강왕릉 출토

고구려와 백제의 두침이 머리만 받치는 형태인 것에 비해 신라의 석침은 머리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받칠 수 있는 확대된 개념의 석침을 만든 것이 특징적이다. 신라의 장례용 두침은 주로 석실분에 사용되었고, 귀족 이상의 계층이 사용하였으나 점차 석곽묘를 조성한 집단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5)</sup>

삼국시대의 두침은 도제를 비롯해 목제와 석제 두침이 사용되었으나 고구려는 도제, 신라는 석제 두침이 많은 편이지만, 백제는 목제를 비롯해 도제와 석제 두침을 사용하여 가장 다양한 재질의 두침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4) 황보경, 앞의 논문, 66-67쪽.

15) 황보경, 앞의 논문, 74-78쪽.

### 3.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정면

무령왕릉 출토 왕비의 두침은 잘 다듬은 역사다리꼴 나무 토막의 가운데를 U자형으로 파낸 다음 辰砂로 붉은 칠을 하고, 금박으로 윤곽선을 만든 후 그 안에 다시 금박으로 육각문을 연속적으로 표현하였다. (圖 6) 육각문 안에는 天人과 魚龍, 연꽃, 팔메트, 봉황 등을 그렸고, 윗부분에 봉황 장식을 올려놓았다.



圖 6. <왕비 두침>, 백제 6세기, 높이 33.7cm, 길이 44.2cm, 두께 12.2cm, 무령왕릉 출토, 국보

무령왕릉 발굴 이후 왕비 두침의 정면은 항상 연화화생의 장면이 그려진 면을 정면으로 간주하였다. 1973년 간행된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왕비의 두침은 U자형으로 “패어진 부분의 높이는 11.1cm, 너비는 한쪽이 19.4cm, 한쪽은 18.5cm로서 한쪽이 1cm 좁아졌고, 그쪽이 약간 높아져 그쪽이 머리 쪽이라고 믿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sup>16)</sup> 또한 이 면에는 천인과 어룡 등 연화화생을 통한 천인의 탄생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왕비 두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왕비 두침의 정면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왕비 두침의 U자형으로 파인 부분은 발굴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쪽은 높고, 다른 한쪽은 낮다. 또한 파인 부분의 너비도 한쪽은 19.4cm, 한쪽은 18.4cm로 다른 한쪽이 좁다. 즉 좁은 부분이 약간 높은 것이다. 장례용 두침에 시신을 안치할 때는 높고 좁은 쪽보다는 낮고 넓은 쪽으로 머리를 놓는 것이 안정적이고 일반적이다. 즉 뒤통수는 낮은 쪽에 정수리는 높은 쪽을 향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와 같은 예는 나주 북암리 3호분 7호묘 출토 석제 베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삽도 1>

16) 문화재관리국,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1973, 44쪽.



나주 복암리 3호분 7호묘 출토 석제 두침은 모두 머리 두는 부분을 반원형으로 파냈는데,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아 앞으로 경사져 있다.<sup>17)</sup> 복암리 3호분 7호묘 출토 석제 두침은 구조상 뒤통수는 낮은 쪽, 정수리는 높은 쪽에 놓아야 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복암리 3호분 6호묘 출토품도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시신의 머리를 놓는 두침의 구조는 유사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정면과 관련하여 낮고 넓은 쪽 나무의 일부는 채색이 벗겨지고 박락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圖 7) 왕비 두침을 위에서 보았을 때, U자로 파인 부분의 앞쪽은 채색이 벗겨지고 나무도 일부 박락이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圖 8) 또한 이곳에서 90°로 꺾인 부분도 나무가 일부 박락된 것을 알 수 있다. 왕비 두침의 나무가 박락된 곳은 왕비 시신의 머리가 놓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두침에 그려진 다양한 그림의 훼손도 낮고 넓은 쪽이 더 심한 것으로 보아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정면은 좁고 높은 곳이 아닌 낮고 넓은 쪽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17) 국립문화재연구소, 『羅州 伏岩里 3號墳』, 2001, 265쪽.



圖 7.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다른 면



圖 8.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뒷면

더불어 발견 당시의 사진을 보면, 왕비 두침은 목관의 부재들 사이에 쓰러져 있는데, 현재의 연화화생이 그려진 면이 위로 향하고 있다. (圖 9) 이것은 왕비 두침이 앞으로 쓰러진 것으로 연화화생이 그려진 면이 정면이 아닌 두침의 후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圖 9. 무령왕릉 출토 왕비 베개의 발견 당시 모습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정면을 두침의 구조와 발견 당시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았다. 시신을 안치하는 장례용 두침은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은 구조가 일반적이고, 연화화생의 장면이 위로 향하고 있는 왕비 두침의 발견 당시의 사진을 보면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정면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은 발견 이후 연화화생 과정이 묘사된 면을 정면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왕비 두침의 구조와 나무의 박락 및 그림의 훼손 등으로 보아 기존의 정면은 후면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후면이 정면이 되어야 할 것이며, 발견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4.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 봉황의 방향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윗면에는 2개의 봉황 장식이 있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이 봉황 장식은 왕비 두침 앞에 떨어져 있던 것으로 원래 두침 양 끝 쪽 상면에 전면을 보고 얹혀 있었던 것이고, 두 마리 모두 왕비 머리 쪽으로 목을 꺾어 기대는 것처럼 배치하였던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sup>18)</sup> 즉 발굴보고서에서는 봉황 장식의 방향이 왕비 쪽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에서는 왕비 두침 봉황장식의 방향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sup>19)</sup> 봉황 장식의 방향에 대해 재고가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제작 당시 봉황 장식이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보고 있었을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에 놓이는 봉황 장식의 방향은 안쪽과 바깥쪽 중 어느 쪽이 타당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과 비교할 수 있는 위진남북조시대의 장례용 두침이 발견되지 않아 옥으로 만든 漢代 장례용 두침의 예를 살펴보면,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봉황 장식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漢代 장례용 두침의 동물장식

###### (1) 中山王 劉勝墓 출토 옥침(圖 10)

漢代의 장례용 옥침 중에서 구체적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중국 河北省 滿城 中山王 劉勝의 묘에서 출토된 옥침이다. 중산왕 류승은 漢 武帝의 이복형으로 기원전 154년 中山王에 봉해졌고, 기원전 113년 사망하였다. 류승묘 출토 옥침은 금동으로 만들고 옥을 장식으로 붙인 것으로 玉衣와 조합을 이루면 사용된 장례용구이다. 옥침의 양 끝에는 용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머리를 들어 옥침의 바깥쪽을 바라보고 배치되어 있는데, 용의 발톱과 같은 4개의 짧은 다리가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상자형 옥침의 양 끝에 동물을 배

18) 문화재관리국, 앞의 보고서, 1973, 45쪽.

19) 박서영, 앞의 논문, 2016, 23쪽.

치하는 것은 하북성과 산둥성, 북경 지역에서 출토되며 하북성에서 가장 많은 예가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0)</sup>

류승묘 출토 옥침의 동물 장식을 통해 漢代의 장례용 옥침의 동물 장식은 서한 초기부터 옥침에 장식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기원전 113년을 하한으로 볼 수 있다. 옥침의 양 끝에 용머리를 장식한 것은 중산왕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물의 방향이 옥침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어 시신을 보호하는 벽사적 의미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圖 10. 中山王 劉勝墓 출토 옥침, 西漢 기원전 113년경, 길이 44.1cm, 높이 17.6cm

## (2) 寶縮墓 출토 옥침(圖 11)

두관은 중산왕 류승의 부인으로 기원전 104년경 사망하였다. 두관의 묘에서도 류승의 묘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옥침이 출토되었다. 류승과 두관의 사망연대는 약 10년의 차이가 있지만, 두침의 모습은 큰 차이가 없다. 두관묘에서도 옥침은 옥의와 조합을 이루며 부장되었던 장례용구이고, 두관묘 출토 옥침도 금동으로 만들고 앞 뒤면에 옥을 감입하였다. 이 옥침 역시 양 끝에는 용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머리를 들어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고, 류승묘 출토 옥침처럼 4조의 발톱을 가진 짧은 다리가 4개 표현되어 있다. 두관묘 출토 옥침은 류승묘 출토품과 유사하지만, 용의 표현과 옥침에 새겨진 玉璧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의 사망연대



圖 11. 寶縮墓 출토 옥침, 西漢 기원전 104년경, 길이 41cm, 높이 20.2cm

20) 王雪嬌, 앞의 논문, 45쪽.

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대적 차이는 류승묘와 두관묘에서 출토된 박산향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두관묘 출토 옥침의 동물 장식도 류승묘 출토편처럼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어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사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sup>21)</sup> 더불어 두관묘 출토 옥침은 기원전 104년을 하한으로 할 수 있다.

### (3) 중국 江蘇省 徐州 後樓山 M1 漢墓 출토 동침(圖 12)

중국 강소성 서주는 서한대의 옥침이 가장 많이 출토된 곳이다. 서주는 한 고조의 고향으로 이곳은 서한대 諸侯와 列侯, 귀족, 관료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다. 서주 後樓山 M1 漢墓는 서주 초기로 편년하는 고분으로 묘주는 楚王의 친족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2)</sup>

후루산 M1 한묘 출토 옥침은 銅으로 두침을 만들고 주요 문양대에는 금을 도금한 상자형의 옥침이다. 두침의 긴 면의 한쪽에는 鋪首가 달린 문을 만들고, 다른 한 면에는 옥을 감입하였다. 두침의 양측면에는 크게 장식된 포수와 함께 각각의 모서리에는 45° 방향으로 배치되어 머리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는 4마리의 용을 배치하였는데, 4마리의 용은 모두 바깥쪽을 바로 보고 있다. 이 두침은 측면 모서리의 4마리의 용과 함께 측면 중앙에 포수가 장식된 것이 특징이고,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사적 의미로 용과 포수를 배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圖 12. 徐州 後樓山 M1 漢墓 출토 金銅枕, 서한초기  
길이 31.5cm, 높이 10.2cm

21) 王雪嬌은 한대 옥침의 동물 장식이 楚墓에서 발견되는 벽사적 의미를 가진 진묘수를 연상시킨다고 언급하고 있다. 王雪嬌, 앞의 논문, 45쪽.

22) 徐州博物館, 「江蘇徐州后樓山西漢墓發掘報告」, 『文物』1993-4기.

## (4) 江蘇省 徐州 獅子山 楚王墓 出土 玉枕(圖 13)

강소성 서주 사자산 楚王墓에서 출토된 옥침은 2개의 다리가 있는 几形의 두침이다. 이 옥침의 다리는 옥으로 만들어 두침면에 결합하였고, 두침면은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35편의 옥을 올려놓았다. 두침의 양 끝에는 옥으로 조각한 동물을 끼워 넣었다. 이 옥침의 양 끝에 장식된 동물은 머리 부분만을 평면적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두침의 동물 장식도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 시신을 보호하는 벽사의 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漢代의 옥침의 형태 중에서 이처럼 几形의 옥침은 동물장식을 낮고 평면적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으로 생각된다.



圖 13. 徐州 獅子山 楚王墓 出土 옥침, 서한 초기, 길이 31.5cm, 높이 10.2cm

## (5) 北京 大葆台 1號墓 出土 玉枕(圖 14)

중국 북경 대보태 1호묘는 서한 말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고분으로 묘주는 광양왕 劉建으로 추정하고 있다.<sup>23)</sup> 대보태 1호묘에서도 장례용 두침이 출토되었는데, 두침은 몸체는 사라지고, 두침 양 끝단의 동물 장식만 출토되었다. 두침 양 끝단에 장식된 동물은 용으로 추정되며, 몸체와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용은 몸체 일부와 머리만 남아있는데, 동으로 주조 후 빨과 혀는 옥으로 만들어 끼웠다. 이 두침의 동물 장식도



圖 14. 北京 大葆台 1號墓 出土 玉枕, 서한말기, 용두 높이 20.5cm, 너비 8.5cm

23) 王永波·劉曉燕, 「漢代王侯的陵寢用枕」, 『東南文化』1998-4期, 104쪽.

바라보는 방향이 두침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 漢代 장례용 두침의 동물 장식은 시신을 보호하기 위한 벽사의 기능을 하기 위해 두침의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6) 雲南省 江川縣 李家山 출토 청동 두침(圖 15)

중국 운남성 강천현 이가산에서 출토된 두침은 앞에서 보았던 것과는 재질이 다른 청동 두침이다. 이 두침은 머리가 놓이는 부분을 편평하게 만들고 끝부분을 활처럼 올려 그 위에 정면을 바라보는 물소를 장식하였다. 두침 아래의 한쪽 면에는 측면으로서 있는 3마리의 소를 새겼다. 이 두침은 漢代 장례용 두침에 장식되는 다양한 동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하며, 비록 물소가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정면을 보고 있다는 점은 특이한 예라고 할 수 있다.



圖 15. 雲南省 江川縣 李家山 출토 청동 베개, 서한초기, 길이 50.3cm, 높이 15.5cm

(7) 雲南省 晉寧 石寨山 출토 청동 두침(圖 16)

중국 운남성 진녕 석채산에서 출토된 청동 두침은 운남성 강천현 이가산 출토 청동침과 유사하다. 이 두침도 머리가 놓이는 부분은 편평하게 만들고, 양 끝은 활처럼 올리고 그 위에 정면을 바라보는 물소를 장식하였다. 두침 아래에는 渦文을 새기고 있어 이가산 출토품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가산 출토품처럼 물소가 정면을 바라



圖 16. 雲南省 晉寧 石寨山 출토 청동 베개, 서한초기, 길이 40cm, 높이 22.5cm

보는 모습은 漢代 두침에 장식된 동물이 놓이는 방향이 바깥쪽 아니면 정면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漢代 장례용 두침에 장식된 동물 장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漢代 장례용 베개에 장식된 동물은 용과 서수, 물소 등의 동물들이 장식되어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동물들은 두침의 양 끝단에 배치되어 두침의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바라보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 동물장식의 기능은 시신을 보호하고 나쁜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운남성 강천현 출토 두침의 양 끝단의 동물은 상상의 동물이 아닌 현실의 동물인 물소이고, 바라보는 방향도 정면이어서 용과 서수가 장식된 두침 장식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 2)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봉황의 방향

앞에서 중국 漢代의 장례용 두침에 장식된 동물과 동물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대의 장례용 두침에 장식된 동물들은 용이나 瑞獸 등이 바깥쪽을 바라보면서 배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봉황이나 瑞鳥와 같은 동물들은 없었고, 동물들은 대부분 바깥쪽을 바라보도록 배치된 것이 특징이었다. 그렇다면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에 놓인 봉황은 기원을 어디에 두고 어느 쪽을 보아야 하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한대 장례용 두침에 장식된 동물들은 용과 서수 등은 있었지만, 봉황을 비롯한 새들은 없었다.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과 비교할 중국 남조의 장례용 두침이 발견된 바가 없어 직접 비교할 대상은 없다. 그러나 남조에서 발견되지 않은 장례용 두침의 사용과 중국에는 없는 장례용 두침의 동물 장식으로 봉황을 사용한 것은 중국과는 다른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먼저 장례용 두침의 동물 장식으로서 봉황의 등장 또는 사용은 백제의 독특한 의장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백제는 전촉분 등 남조의 영향을 받지만,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과 같은 예는 현재까지 남조의 고분에서는 발견되지 않아 현재 시점으로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봉황 장식

은 백제의 독창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령왕릉 발굴보고서에는 봉황의 방향을 안쪽으로 보았지만, 실제 漢代의 장례용 두침의 동물 장식은 대부분 바깥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시신을 외호하고 나쁜 것을 물리치는 벽사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장례용 두침에 장식된 동물의 기능이 외호와 벽사의 의미라면,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에 놓이는 봉황 장식도 같은 기능을 했을 것이고, 봉황이 바라보는 방향은 두침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 옳은 방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한대의 두침 중에서 동물이 장식된 다양한 두침의 예를 보았으나 두침의 동물 장식은 바깥쪽이나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알 수 있다. 두침은 시신을 안정적으로 안치하기 위한 장례용구이고, 두침의 동물 장식은 시신을 보호하고 나쁜 것을 물리치는 벽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에 놓인 봉황도 동일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고, 봉황의 방향은 현재와 같은 두침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바라보며 놓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의 정면과 두침에 놓이는 봉황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왕비 두침의 정면은 시신의 머리를 두침에 가장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는 쪽을 정면으로 보았고,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현재 왕비 두침의 정면으로 간주하는 면은 후면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후면이 정면이 되어야 할 것이고, 후면에 새겨진 연화화생의 장면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침 위에 놓이는 봉황은 기본적으로는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보면서 위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장례용 두침에 놓이는 동물 장식의 기능이 외호와 벽사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漢代의 장례용 두침에 장식되는 동물 중 봉황은 없었기 때문에 봉황을 외호와 벽사가 아닌 祥瑞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무령왕릉 출토 왕비 두침에 놓이는 봉황의 위치는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참고문헌

『儀禮』

『周禮』

『通典』

顏之推, 『顏氏家訓』

顏之推 著 · 임동석 역주, 『안씨가훈』, 고즈윈, 2004.

국립문화재연구소, 『羅州 伏岩里 3號墳』, 2001.

문화재관리국, 『武寧王陵 發掘調査報告書』, 1973.

徐州博物館, 『江蘇徐州后樓山西漢墓發掘報告』, 『文物』1993-4期.

강우방, 「무령왕비 두침과 족좌의 영기화생의 조형해석과 도상해석」, 『무령왕릉을 格物하다』, 국립공주박물관, 2011.

김대환, 「삼국시대의 도침 연구」, 『백산학보』 71, 백산학회, 2005.

박서영, 「백제 무령왕릉 두침과 족좌의 용도와 성격」, 『미술사학연구』 289, 2016.

장석오, 「武寧王妃 頭枕에 그려진 魚龍文의 實體」, 『백제문화』, 2013.

진홍섭, 「武寧王陵 발견 頭枕과 足座」, 『백제연구』 9, 1975.

邵磊, 「摩羯紋의 東進過程에 관한 약간의 문제 - 百濟 武寧王妃 木枕에 그려진 魚龍紋의 기원에 대하여」, 『충청학과 충청문화』, 2006.

范佳楠, 「南北朝墓葬所見銅禮佛用具」, 『故宮博物院院刊』2017-1期.

王雪嫣, 「汉代玉枕形器与古玉改制」, 『美术教育研究』2023-22.

王永波 · 劉曉燕, 「漢代王侯的陵寢用枕」, 『東南文化』1998-4期.

赵赞, 「试论汉代玉枕」, 『文物世界』2009-6期, 2009.

肖梵龍, 「鎮江市博物館藏宋影青瓷枕」, 『文物』1978-11期.

吉村怜, 「百濟武寧王妃木枕に描かれた佛教圖像について」, 『美術史研究』14, 1977.

原田淑人 外, 『樂浪: 五官掾王町の墳墓』, 刀江書院, 1930.

## A Study on the Front Side and Direction of Phoenix on Queen's Pillow excavated at King Muryeong's Tomb

Lee Yong Jin\*

The tomb of King Muryeong of Baekje, which had never been stolen since its construction, was found in the Songsan-ri tomb site of Gongju city in 1971. In the excavation of King Muryeong's tomb, 108 items and 4,687 relics of kings and queens were unearthed, providing an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 history and art of Baekje dynasty. This article would focus on the front side of the queen's pillow and the direction of the phoenix placed on the pillow of the queen. The front side of the queen's pillow excavated from King Muryeong's tomb is thought as the side where the head could be placed most stably on the pillow. In other words, it was considered that the back of the head was placed on the lower side of the head and the top of the head was placed on the higher side. So the front side of the current queen's pillow should be the back and the back side should be the front. This is because the structure of pillow of Goguryeo and Silla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and other pillows of Baekje are the same, so it is thought that the queen's pillow excavated from King Muryeong's tomb is also the same.

The beasts placed on a pillow of Han dynasty are facing outwards, because the function of the beast decorations placed on pillow is that of protecting body and warding off evil spirit. From this perspective, it seems that the phoenix

---

\* Assistant Professor of Department of Art History, Graduate School of Dongguk University

on the queen's pillow excavated from King Muryeong's tomb should also be placed facing outward rather than inward. However, since there was no phoenix among the beasts decorated on the jade pillow of the Han Dynasty, if the phoenix is interpreted as a auspicious thing rather than protecting body and warding off evil spirit, it is possible that the position of phoenix on the queen's pillow excavated from the tomb of King Muryeong was placed facing the front.

**Key words:** tomb of King Muryeong, the front side of Queen's pillow, direction of pheonix, Jade Pillow of Han dynasty, Waring off evil spirit